



중학도 역시 EBS

세상에 없던 새로운 공부법

EBS 중학

뉴런



국어 2



무료 강의 제공



단어의 정확한 발음과 표기

- 학습 목표**
- 표준 발음법의 기본 원칙을 알고, 올바르게 발음할 수 있다.
 - 한글 맞춤법의 기본 원칙을 알고, 올바르게 표기할 수 있다.

더 알아 두기

+ 표준어 규정 제1장 총칙 제1항

표준어는 교양 있는 사람들이 두루 쓰는 현대 서울말로 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 계층: 교양 있는 사람들이 쓰는 말(비속어는 안 됨)
- 시기: 현대에 사용하는 말(옛말은 안 됨)
- 지역: 서울에서 사용하는 말(지방어는 안 됨)
- 원칙으로 함: 예외를 인정함.

+ 받침의 유형

- 출받침: 하나의 자음으로 된 받침 (ㄱ, ㄴ, ㄷ 등)
- 쌍받침: 같은 자음자가 겹쳐서 된 받침 (ㄱ, ㅃ 등)
- 겹받침: 서로 다른 두 자음으로 구성된 받침 (ㄱ, ㅌ, ㅍ 등)

1 단어의 정확한 발음 (* 이 교재에서는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장음과 단음을 구별하지 않음.)

(1) 표준 발음법 제1장 총칙

제1항 표준 발음법은 ① 표준어의 실제 발음을 따르되, ② 국어의 전통성과 ③ 합리성을 고려하여 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 교양 있는 사람들이 두루 쓰는 현대 서울말의 발음을 따른다.
- 현대 서울말에서 사람들에게 따른 발음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전통에 따라 정한다.
- 국어의 규칙이나 법칙에 따라 표준 발음을 합리적으로 정한다.

(2) ‘ㄴ’의 발음

제5항 ‘ㄴ’은 이중 모음으로 발음한다.

다만 3. 자음을 첫소리로 가지고 있는 음절의 ‘ㄴ’은 [ㄴ]로 발음한다.

다만 4. 단어의 첫음절 이외의 ‘의’는 [의]로, 조사 ‘의’는 [의]로 발음함도 허용한다.

예 의사[의사], 희망[희망], 주의[주의/주이], 우리의[우리의/우리예]

(3) 받침소리의 발음

제8항 받침소리로는 ‘ㄱ, ㄴ, ㄷ, ㄹ, ㅁ, ㅂ, ㅇ’의 7개 자음만 발음한다.

제9항 받침 ‘ㄱ, ㅋ’, ‘ㅅ, ㅆ, ㅈ, ㅊ’, ‘ㅍ’은 어말 또는 자음 앞에서 각각 대표음 [ㄱ, ㄷ, ㅂ]으로 발음한다.

예 닦다[닥따], 키웁[키웁], 옷[읏], 있다[읏따], 젖[젇], 꽃[꼇], 솥[솇], 앞[압]

제10항 겹받침 ‘ㄱ, ㄴ, ㅌ, ㅍ’은 어말 또는 자음 앞에서 각각 [ㄱ, ㄴ, ㄷ, ㅂ]으로 발음한다.

제11항 겹받침 ‘ㄹ, ㅍ, ㅆ’은 어말 또는 자음 앞에서 각각 [ㄱ, ㅁ, ㅂ]으로 발음한다.

예 녀[녀], 앓다[안따], 닭[닥], 삶[삼]

예로 개념 확인

- ① (가) 은주: 나는 장래에 ②[이사]가 되고 싶어.
선호: 의사? 이사?
- 선호: 우리 집 ③[다기] 어디에 있지?
은주: 다기를 왜 여기에서 찾아?
선호: 병아리하고 있는 걸 봤거든.
- 어머니: ④[우서른]을 만나면 인사를 잘 해라.
선호: 우서른이 누구인데요?

(나)

민희야, 지금 잠깐 볼 수 있니? 나

민희 응, ⑤돼지. 왜? 나

돼지라고? 너무 심한데? 나

민희 무슨 말이야? 만나서 ⑦예기해. 나

그건 또 무슨 말이야? 나

민희 갑자기 왜 그래? ⑧어의없네. 나

여기에서 어의가 왜 나오니? 나

제13항 홑받침이나 쌍받침이 모음으로 시작된 조사나 어미, 접미사와 결합되는 경우에는, 제 음가대로 뒤 음절 첫소리로 옮겨 발음한다.

제14항 겹받침이 모음으로 시작된 조사나 어미, 접미사와 결합되는 경우에는, 뒤엣것만을 뒤 음절 첫소리로 옮겨 발음한다.

제15항 받침 뒤에 모음 ‘ㅏ, ㅑ, ㅓ, ㅕ, ㅗ, ㅛ’들로 시작되는 실질 형태소가 연결되는 경우에는, 대표음으로 바꾸어서 뒤 음절 첫소리로 옮겨 발음한다.

예 웃이[오시], 있어[이써], 젊어[절머], 읊어[을퍼], 걸웃[거돋], 꽃 위[꼬뒤]

더 알아 두기

제15항의 [붙임] 규정

[붙임] 겹받침의 경우에는, 그중 하나만을 옮겨 발음한다.

모음으로 시작하는 실질 형태소 앞에 겹받침이 올 경우에는 제10항과 제11항에 의해 선택된 발음이 뒤 음절 첫소리로 옮겨 발음됨.

예 낫 없다 → [낙업따] → [너겍따]

2 단어의 정확한 표기

(1) 한글 맞춤법 제1장 총칙

제1항 한글 맞춤법은 ①표준어를 소리대로 적되, ②어법에 맞도록 함을 ③원칙으로 한다.

- ① 표준어를 발음 형태대로 그대로 적는다.
- ② 뜻을 파악하기 쉽게 하기 위해 본래의 형태를 밝혀서 적는다.
- ③ 예외가 있을 수 있다.

(2) 자주 틀리는 표기

- 본래의 형태를 밝혀 적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
예 오뚝이(○) / 오투기(×), 만뽕(○) / 만뚝(×)
- 준말을 헛갈리는 경우 (1)
예 오랜만(오래간만)(○) / 오랫동안(×), 웬지(왜인지)(○) / 웬지(×)
- 준말을 헛갈리는 경우 (2)
예 되- / 돼(‘되어’의 준말), 뵈- / 뵈(‘뵈어’의 준말)
- 발음이 같은 경우
예 달하다 / 다치다, 맞하다 / 마치다, 반듯이 / 반드시, 붙이다 / 부치다

‘오랜만’과 ‘오랫동안’

- 오랜만: ‘오래간만’의 준말로 ‘간’의 받침소리인 ‘ㄴ’이 붙음.
- 오랫동안: ‘오래’와 ‘동안’의 합성어로 사잇소리 ‘ㅅ’이 붙음.

‘웬지’와 ‘웬’

- 웬지: ‘왜인지’의 준말
예 웬지 불길하다.
- 웬: ‘어찌 된’ 또는 ‘어떠한’의 의미를 갖는 관형어
예 웬 일이나?, 웬 낯선 사람

- ① 정확한 발음의 필요성: (가)의 각 대화는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고 있다. 잘못된 발음은 사람들 사이의 의사소통에 방해가 된다.
- ② ‘ㄴ’의 발음: 첫소리에 오는 ‘ㄴ’은 이중 모음으로 발음해야 하므로 ‘의사’는 [의사]라고 해야 한다.
- ③ 겹받침의 발음: ‘닭이’를 [달기]로 발음해야 하는데, [다기]라고 잘못 발음해서 ‘다기(차를 담는 그릇)’로 오해할 수 있다.
- ④ 받침의 발음: ‘우더른’은 [우더른]이라고 해야 하는데, [우서른]이라고 해서 의미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고 있다.
- ⑤ 정확한 표기의 필요성: 민희는 잘못된 표기를 사용하여 친구에게 제대로 의사를 전달하지 못하고 있다.
- ⑥ ‘되지’와 ‘돼지’: ‘되지’를 ‘돼지’로 잘못 써서 상대방이 놀림을 받는 것으로 오해하고 있다.
- ⑦ ‘얘기’와 ‘예기’: ‘이야기’의 줄임말이기 때문에 ‘얘기’라고 해야 하는데, ‘예기’라고 썼다.
- ⑧ ‘어의’와 ‘어이’: ‘어의’는 ‘임금을 치료하던 의원’이다. ‘일이 너무 뜻밖이라 기가 막히다.’라는 뜻으로는 ‘어이없네.’라고 써야 한다.



‘민주주의의 의의’는 어떻게 발음할까?

- **해제:** 이 글은 표준 발음법의 총칙을 통해 표준 발음의 사정 원칙을 소개한 후, 표준 발음법 제2장과 제4장에서 제시한 모음 ‘-이’와 받침소리의 발음 규정을 구체적인 예를 통해 알기 쉽게 설명한 글이다.
- **주제:** 모음 ‘-이’와 받침소리의 올바른 발음

내용 연구

표준 발음법의 필요성

표준 발음이 필요한 이유

정확하게 발음하지 않으면 사람들 간의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음.

구절 풀이

• 하지만 ~ 내용을 덧붙였다.:
현대 서울말의 발음이 사람에 따라 다른 경우에 표준 발음을 정하는 원칙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예를 들어 서울 사람 중 나이가 많은 사람들과 달리 젊은 사람들은 장단음을 잘 구별하지 않는 경우가 많지만, 소리의 길이를 구별한 국어의 전통을 고려해 표준 발음법에 소리의 길이에 대한 규정을 포함시킨다.

낱말 풀이

- * **규범:** 인간이 행동하거나 판단할 때에 마땅히 따르고 지켜야 할 가치 판단의 기준.
- * **규정:** 규칙으로 정함. 또는 그 정하여 놓은 것.
- * **합리성:** 이론이나 이치에 합당한 성질.
- * **허용:** 허락하여 너그럽게 받아들임.

표준 발음법

(가) 다음 문장을 읽어 보자.

㉠ “나에게는 아직 빛이 남아 있다.”

이 문장을 [나에게는 아직 ‘비지’ 나마 인따]나 [나에게는 아직 ‘비시’ 나마 인따]로 발음하면 다른 사람과의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이 때문에 발음의 표준을 정한 *규범인 ‘표준 발음법’이 필요한 것이다. ‘빛이’에 해당하는 발음, ‘비’에 해당하는 발음, 정확한 발음이 필요한 이유, ‘표준 발음법’의 내용

▶ 표준 발음법이 필요한 이유

(나) 우리나라에서는 표준 발음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제1항 표준 발음법은 표준어의 실제 발음을 따르되, 국어의 전통성과 합리성을 고려하여 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 ‘표준 발음법’의 총칙에 해당하는 내용

여기에서 표준어의 실제 발음을 따른다는 것은 교양 있는 사람들이 두루 쓰는 현대 서울말의 발음을 표준어의 실제 발음으로 여긴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표준어 규정 하지만 현대 서울말에서조차 사람들에게 따라 발음의 차이가 존재할 수 있다. 전통성을 고려해야 하는 이유 이러한 경우에는 예로부터 지켜 온 우리말의 전통에 따라 표준 발음을 정한다는 의미에서 ‘전통성’을 고려한다는 내용을 덧붙였다. 또한 표준 발음을 정할 때에는 국어의 규칙이나 법칙에 따른다고 하면서 언어생활의 *‘합리성’도 고려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대화를 할 때에는 규정과는 다른 발음이 더 널리 사용되는 경우가 있다. ㉡ ‘맛있다’는 [마딤따]로 발음해야 하지만, [마싯따]로 발음하는 경우가 더 많아서 두 발음을 모두 허용하고 있다. 이처럼 규정에 벗어나는 경우는 ‘다만’을 추가해 예외적으로 규정하기도 한다. 표준 발음은 국어의 일반적 규범에 맞는 발음임, 합리성을 고려한 발음, 실제 사람들이 많이 하는 발음

▶ 우리나라의 규정

모음 ‘-이’의 발음

(다) 모음 ‘-이’는 가장 발음하기 어려운 음운이다. 원칙적으로 ‘-이’는 이중 모음으로 발음해야 한다. 하지만 ‘-이’가 ‘희다’처럼 자음과 함께 사용될 때나 ‘나의’처럼 조사로 사용될 때, 그리고 ‘협의’처럼 첫음절 외에 사용될 때에는 정확하게 발음하기 어렵다. 그래서 표준 발음법에서는 ‘-이’ 발음에 대한 예외 규정을 몇 가지 마련하였다. ‘-이’가 자음을 첫소리로 가진 경우에는 [-이]가 아닌 [ㅣ]로 발음한다. 또한 단어의 첫음절 이외의 ‘의’는 [ㅣ]로, 조사 ‘의’는 [꺠]로 발음하는 것도 허용하였다. 여기에서 허용한다고 하는 것은 해당 음절을 [-이]로 발음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ㅣ]나 [꺠]로 발음해도 된다는 뜻이다. 이 규정에 따르면 ‘희다’는 [히다]로 발음해야 하며, ‘나의’는 [나ㅣ] 또는 [나에]로, ‘협의’는 [혀비] 또는 [혀비]로 발음할 수 있다. [ㅣ]를 기본으로 하되, 상황에 따라 [꺠]나 [ㅣ]도 인정함.

그렇다면 ‘민주주의의 의의’는 어떻게 발음해야 할까? ▶ 모음 의 발음



'민주주의의 의의'는 어떻게 발음할까?

내용 연구

받침소리 발음에 영향을 주는 요소

| | |
|--------|---|
| 받침의 유형 | 홀받침, 쌍받침, 겹받침 |
| 받침의 환경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받침이 어말에 오는 경우 • 뒤에 자음이 오는 경우 •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가 오는 경우 •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실질 형태소가 오는 경우 |

구절 풀이

• 이번에는 ~ 소리 나기 때문이다: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자음 'ㄷ, ㅅ, ㅆ, ㅈ, ㅊ' 중 음절의 끝에서 소리가 나는 것은 [ㄷ]밖에 없기 때문에 나머지 자음은 [ㄷ]으로 바뀌어 발음이 된다. 이때, [ㄷ]을 '대표음'이라고 한다.

• 먼저 뒤에 ~ 정확한 발음이다: 조사나 어미, 접미사 등은 실질적인 의미를 갖지 않고 다른 말과의 문법적 관계만 나타내는 역할을 하는 형식 형태소이다. 형식 형태소는 자립성이 없어 앞말과 분리하여 발음하지 않는다. 따라서 앞말의 받침소리가 따로 변하지 않고, 그대로 모음 위치에 올라와 소리가 난다.

낱말 풀이

- * 받침소리: 음절의 구성에서 마지막 소리인 자음 중심.
- * 겹받침: 서로 다른 두 개의 자음으로 이루어진 받침.
- * 실질 형태소: 실질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는 형태소.

* 받침소리의 발음

(가) 이번에는 '낫', '낫', '낫', '낫', '낫'을 각각 발음해 보자. 다섯 개의 단어가 구분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각 단어의 *받침소리인 'ㅅ', 'ㅈ', 'ㄷ', 'ㅌ', 'ㅊ'이 모두 [ㄷ]으로 발음되어 [낫]이라고 소리 나기 때문이다. 이처럼 우리말에는 음절의 끝에서 발음될 수 있는 자음이 제한되어 있는데, 표준 발음법에서는 다음처럼 규정하고 있다.

제8항 받침소리로는 'ㄱ, ㄴ, ㄷ, ㄹ, ㅁ, ㅂ, ㅇ'의 7개 자음만 발음한다.
 제9항 받침 'ㅃ, ㅅ, ㅆ, ㅈ, ㅊ, ㅌ, ㅍ'은 어말 또는 자음 앞에서 각각 대표음 [ㄱ, ㄷ, ㅂ]으로 발음한다.

이에 따르면 '밖'과 '부엌'은 각각 [박]과 [부억]으로 발음해야 하며, '있다'와 '있'은 각각 [인따]와 [입]으로 발음해야 한다. ▶ 어말 또는 앞에서 홀받침과 쌍받침의 발음

(나) 그렇다면 받침소리로 *겹받침이 올 때는 어떻게 발음해야 할까? 겹받침은 그것을 구성하는 두 개의 자음 중 하나를 발음하면 된다. 이때 발음을 하는 자음은 앞의 것이 될 수도 있고, 뒤의 것이 될 수도 있다. '넋'과 '값'은 앞의 받침이 발음되어 [넋]과 [갑]으로 소리가 나고, '삶'은 뒤의 받침이 발음되어 [삼]으로 소리가 난다. ▶ 어말 또는 자음 앞에서 의 발음

(다) 이때 주의해야 할 겹받침은 '래'와 '리'이다. 일반적으로 '래'는 '여덟[여덜]'처럼 [ㄹ]이 발음되지만, '빨대[빨:때]', '빨고[빨:꼬]'처럼 '빨-'은 [ㅂ]으로 발음된다. 이외에 '래'이 [ㄹ]으로 발음되는 단어로는 '넙죽하다[넙쭈카다]', '넙둥글다[넙똥글다]'가 있다. 또한 '리'는 '닭[타]', '맑다[막따]'처럼 [ㄱ]으로 발음해야 하지만, 'ㄱ' 앞에 쓰이는 용언 어간의 '리'는 [ㄹ]로 발음한다. 이에 따르면 '읽지'는 [익찌]로, '읽고'는 [일꼬]로 발음해야 한다. ▶ '래'와 의 발음

(라) 이번에는 뒤에 모음이 올 경우의 받침소리 발음에 대해 알아보자. 이와 관련해서는 두 가지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다. • 먼저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조사나 어미, 접미사와 같은 형식 형태소가 올 경우이다. '밭에'와 '깎아', '흙이'는 어떻게 발음해야 할까? '밭', '깎다', '흙'이 [받], [깎따], [흙]으로 발음되는 원리를 적용하면 [바테], [까가], [흐기]로 발음해야 할 것 같지만, [바테], [까까], [흙기]가 정확한 발음이다. 즉, 이런 경우에는 홀받침이나 쌍받침은 제 음가대로 뒤 음절 첫소리로 옮겨 발음하고, 겹받침은 첫째 받침은 그대로 받침의 소리로 발음하고 둘째 받침만 다음 음절의 첫소리로 옮겨 발음한다.

▶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 어미, 접미사가 올 때 받침소리의 발음

(마) 그런데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실질 형태소가 올 때에는 위의 경우와 다르게 발음해야 한다. '밭 아래'는 [바타래]가 아닌 [바다래]로 발음해야 하며, '꽃 위'는 [꼬취]가 아닌 [꼬뒤]로 발음해야 한다. 즉, 이런 경우에는 받침소리를 대표음으로 바꾸어 뒤 음절 첫소리로 옮겨 발음하는 것이다. 한편 '닭 앞에'처럼 모음으로 시작하는 실질 형태소 앞에 겹받침이 올 경우에는 '닭[타]'처럼 독립형으로 쓸 때 발음하는 자음을 뒤 음절의 첫소리로 옮겨 [다가페]로 발음한다. ▶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이/가 올 때 받침소리의 발음

1

단어의 정확한 발음과 표기

- 학습 목표**
- 표준 발음법의 기본 원칙을 알고, 올바르게 발음할 수 있다.
 - 한글 맞춤법의 기본 원칙을 알고, 올바르게 표기할 수 있다.

개념 압축 APP

1 표준 발음의 기본 원칙

- 교양 있는 사람들이 두루 쓰는 현대 서울말을 따름.
- 표준어 발음이 사람마다 다를 때에는 국어의 전통에 따름.
- 국어의 규칙이나 법칙에 따라 () (으)로 결정함.

2 'ㄴ'의 발음

- 'ㄴ'은 기본적으로 이중 모음으로 발음함.
- 'ㄴ'이 자음을 첫소리로 가지고 있을 때에는 []로 발음함.
- 단어의 첫음절 외의 '의'는 [()] (으)로, 조사 '의'는 [ㅁ]로 발음할 수 있음.

3 받침소리의 발음

| | 홀받침과 쌍받침 | 겹받침 |
|-------------|------------------------------------|--------------------------------|
| 어말 또는 자음 앞 | [ㄱ, ㄴ, ㄷ, ㄹ, ㅁ, ㅂ, ()] 중 하나로 발음함. | 두 개의 자음 중 앞 또는 뒤의 하나의 자음만 발음함. |
| 모음 형식 형태소 앞 | 제 음가대로 뒤 음절 첫소리로 옮겨 발음함. | 앞 자음은 남고, 뒤의 자음만 뒤 음절로 옮겨 발음함. |
| 모음 실질 형태소 앞 | 대표음으로 바꾸어 뒤 음절 첫소리로 옮겨 발음함. | 두 개의 자음 중 하나만 뒤 음절 첫소리로 발음함. |

4 맞춤법 표기의 기본 원칙

- ()을/를 소리대로 적음.
- 본래의 형태를 밝혀 어법대로 적음.
- 어법대로 적는 것에 예외가 있을 수 있음.

5 자주 틀리는 표기

| 자주 틀리는 경우 | 예 |
|------------------|---------------------------------|
| 본래 형태를 밝히지 않은 경우 | () (○) / 오투기(×), 굳이(○) / 구지(×) |
| 준말을 헛갈리는 경우 (1) | 오랜만에, 오랫동안, 웬지, 웬 일 |
| 준말을 헛갈리는 경우 (2) | 되- / 돼(되어), 봐- / 배(봐어) |
| ()의 경우 | 묻히다 / 무치다, 받듯이 / 받드시 |

필수 어휘 사전

- 받침소리:** 음절의 구성에서 마지막 소리인 자음. '값', '공'에서 'ㅁ', 'ㅇ' 따위.
- 대표음:** 서로 다른 일련의 자음들이 받침으로 쓰일 때 발음되는 하나의 자음을 이르는 말.

확인 문제



1. 다음 밑줄 친 말 중, [ㄴ]로 발음할 수 없는 것은?

- 너의 성공을 축하해.
- 정의는 반드시 승리한다.
- 내가 그 일을 할 의사가 있어.
- 네 말에서 작은 희망을 발견했어.
- 결국 두 사람은 합의를 하지 못했다.

2. 다음 말을 발음대로 쓰시오.

- 닭 []
- 닭을 []
- 닭도 []
- 닭 울음 []

3. 다음 밑줄 친 말을 바르게 표기한 것은?

- 웬지 네가 올 것만 같았어.
- 옷에 더러운 것을 무치지 마라.
- 학급 회장이 돼니 책임감을 느껴.
- 구지 그런 말을 할 필요가 있었니?
- 오랫동안 그 자리에 혼자 앉아 있었다.

4. 다음 중 맞는 표기에 ○ 표 하시오.

오늘은 체육관에 (안/양) 갈래.

공 7

㉠ 8 물산(ㅅ) ㅅ(ㅅ) ㉡

'름(ㄹ) ㄴ(ㄴ) ㉢ ㉣ ㉤

이이이음음 이이이음 이이이음 이이이음 이이이음